

구자용 E1 사장, 동탑산업훈장 수훈

E1은 구자용 대표이사 사장이 10월2일 서울 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 열린 제1회 LPG의 날 기념행사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고 발표했다.

구자용 사장은 LPG 수출·수입기업 CEO로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LPG 저장시설 확충, LPG 도입선 다변화 등 LPG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훈했다.

E1은 1984년 여수기지가 상업운전을 개시한 이래 21년간 단 1건의 산업재해도 없이 8월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인증하는 무재해 15배수를 달성했고, 10년 연속 무교섭 임금 위임 및 무교섭 단체협약 위임을 이끌어내는 등 모범적인 사업장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도 수훈배경 중 하나이다.

LPG의 날 행사에는 이원걸 산자부 제2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및 LPG 수입사, 정유사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포상 등 기념식과 더불어 인기 가수들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.

한편, E1은 최근 구자용 사장이 의욕적으로 진행중인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인도네시아 국영 Pertamina와 공동으로 추진중인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향후 15년간 총 750만톤의 LPG를 생산함으로써 22억5000만달러의 매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.

아울러 개성공단 조성사업이 본격화되면 현지에 LPG충전소를 건설해 공급량을 늘리는 등 북한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7월에 사업시행허가를 획득한 인천 컨테이너터미널 사업을 계기로 비에너지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.

<화학저널 2005/10/04>